

10여년간 '오월 광주' 담은 다큐 영화 감독 박성배씨

“오월 행불자 가족 통해 大同정신 실종 고발”



“1980년 5월에 실종된 가족들을 찾는 ‘행방불명가족회’(이하 행불가족회)의 5·18 관련자 인정신청 과정을 통해 5월 대동(大同)정신의 ‘실종’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진기자 출신인 박성배(44) 감독은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간 5·18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꾸준히 6mm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영글에 담은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박 감독의 작품 2편이 지난 1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영상제에서 선보여 화제가 됐다.

‘실종’ 등 2편 기념영상제 올려

이번 공개된 다큐멘터리 작품 ‘오월을 찾다’(26분)와 ‘실종’(58분)은 1980년 5월에 현재나 자식이 행방불명된 행불가족회가 중심에 놓여있다. 행불가족회는 ‘무명열사’라는 비명(碑名)으로 망월동 제3묘역에 묻혀있다 DNA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가족을 찾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행방불명의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해 수차례에 걸친 5·18 관련자 인정신청 과정에서 관(官)의 흠대를 받는다. 또 이들을 감싸안아야

할 5월 관련 단체마저도 5·18 당시 행방불명의 직접적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5·18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로 배척한다.

박 감독은 광주일보 자매 월간지 ‘예향’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하다 1997년 퇴직후 새로운 사진을 모색하며 1998년 민연련(민주연인시민연합)에서 실시하는 VJ(비디오 저널리스트) 교육을 받은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변신했다.

이후 2000년 5·18문제를 담은 ‘망월동행 25·2’(9분)를 광주 비엔날레에서 선보였고, 2002년에는 쌀값 폭락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문제를 이슈화한 ‘그리고, 나라’(39분)를 완성했다. 이들 작품은 비경쟁 독립영화의 축제인 ‘인디 포럼’에서 상영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비디오카메라를 든 현재도 ‘기자정신’이 오토이 살아있다. 이번 발표된 ‘실종’과 ‘오월을 찾다’는 박 감독의 3·4번째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 2001년 무명열사 11기의 발굴과 신묘역 이장소식을 듣고 촬영을 시작한 후 행방불명자 신고와 애매장 발굴 등을 연속으로 찍게 됐다”며 “지난 2004년 행불가족회의 인정신청 과정을 집중 촬영하며 ‘오월 정신’이 ‘실종’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막상 큰 줄기로 꿰어야 하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말했다.

수년간 편집을 미뤘던 박 감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09 서울 독립영화제’(SIFF)에 ‘매우 조심스럽게 5·18 정신이 변질되고 실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작품 ‘실종’을 세상에 내놓았다.

작년 서울 독립영화제서 선포

박 감독은 자비로 장비와 제작비를 충당해야 하는 제작 여건속에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려면 서울처럼 감독과 프로듀서·오래이터 등 역할분담이 꽤 시스템화된 제작환경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지역에서 좋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어렵지만, 완성후 서울 등을 무대로 홍보와 마케팅 등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은 자기가 기획해 “자기작품”을 내놓는 젊은 후배감독마저 드물다.

박성배 감독은 “5·18은 기획 아이템이 많지만 잠시 여기에서 한발짝 떨어져서 5월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밀알중앙회 창립 52주년 기념 큰잔치



(사)밀알중앙회(총재 나훈)는 16일 오전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창립 52주년기념 큰잔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밀알회 광주·전남·북 회원 및 가족 2000여명이 참석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장성=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 스카우트 광주연맹 봉사·선행 표창



한국 스카우트 광주연맹(연맹장 서재희)은 16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2000여명의 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스카우트 진급증 수여 및 봉사·선행표창행사 등을 가졌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의회 다문화가족 사랑의 분유 전달



광주시의회(회장 이정남)는 최근 의사회관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랑의 분유 350통을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센터의 홍성실 루시아 수녀에게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신광교회 유동훈 열사 추모 음악회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광주 신광교회(목사 이석호)는 16일 남구 구동 신광교회 예배당에서 고(故)유동훈 열사 추모 음악회를 열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故 이순정 여사, 박인천 회장 곁에 잠들다

북구 운암동 죽호학원내 가족묘원 안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부인이자 ‘금호(家)의 어머니’ 이순정 여사의 유해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죽호학원내 가족묘원에 안장됐다.

고인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뒤 생전에 머물렀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호기념관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오후 1시께 가족묘원의 박 회장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노제와 안장식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중구 아주대 총장직무대행 등을 비롯한 유가족과 박찬범 그룹 회장, 김중호 금호타이어 사장,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이서형 금호석유화학 사장, 이연구 금호건설 사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광태 광주시장, 김재국 의원,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염홍섭 광주경영자협회 회장 등 지역 인사들도 함께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호 국회의장, 정운찬 국무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전



지난 15일 (고) 이순정 여사 안장식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죽호학원 가족묘원에서 거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두한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조문객을 맞았다.

불교식으로 진행된 노제에서 안준 죽호학원 이사장은 조사를 통해 “생명의 노래로 계절은 이토록 푸르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순정 어머니의 그 잔잔한 숨결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됐다”며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법이라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자리가 너무 크기에 우리들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다”고 흐느꼈다.

한편 박삼구·찬구 형제는 장례일정내내 나란히 자리하며 한화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정의 달 어린이·소외계층에 음악 선물

전남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원장 박상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치과병원 1층 로비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광주 북구지역 어린이들과 부모,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1부 ‘합창·연주’, 2부 ‘치아관리 캠페인’으로 나눠 진행됐다. 박상원 전남대치과병원장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치과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캠페인, 치아건강 교육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정신과 지방선거’ 주제 김효석 의원 전남대서 특강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17일 오후 전남대에서 ‘5·18 정신과 6·2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별관 11호 강

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5·18 정신과 뉴 민주당 플랜 ▲6·2 지방선거의 의의와 민주당의 전략 ▲

천안함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이정훈·김춘미씨 차남 승우군 이영준(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인자씨 장녀 지현양=22일(토) 오후 2시 규수당 6층(투비홀) 02-332-9000.

▲조두길(전 KBS 광주총국)·서순심씨 장남 경상(치과의사)·김동일(세무사)·홍인순씨 장녀 애진(치과의사)·양=23일(일) 낮 12시 30분 상무리츠 컨벤션 웨딩홀 1층(아이비홀)

동창·동문회

▲손봉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중심사 중머리재식당. 017-601-5866 (총무박종성)

▲조대부중 23기(아)=27일(목)

오후 7시 중심사 중머리재식당 062-225-8252(구성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10년 100원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23일(일) 오전 11시 서창농협 3층 회의실(금호동소재 서구문화센터 건너편) 011-666-0660(김희만)

▲신앙특강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이제민(에드워드) 신부(마산교구 반송성당 주임신부) 개최=18일(화) 오후 5~6시30분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 세미나실, 시민이든 누구나 참석 가능. 주최 조선대학교 가톨릭 교수회, 이제민 신부는 ‘말은 시들지 않는다’ 외 28권의 저

서를 집필.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메뉴얼, 특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모집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지역문화교류효호남재단 무돌아

트컴퍼니 사원모집=문화예술전문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마케팅부 부장·사원 모집 17일까지. 062-234-2730.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 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충남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십시오.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듣는 사람들(광주학당) 학

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라,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위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김석남씨 별세 윤기·혜남씨 부친상=발인 1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태운씨 별세 김두석·옥향·전선·정옥·정선씨 모친상=발인 17일

(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임성귀씨 별세 현우·윤주씨 부친상=발인 1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임동용씨 별세 채권·채식·채완·채규·경숙씨 부친상=발인 1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서소심씨 별세 광행호(행성테크 대표)·명호·정숙·혜숙씨 모친상=발인 18일(화) 그린장례식장 062-250-4455.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고 이귀택 님(여/88세) 062-227-4000. 고 정영숙 님(여/76세) 062-227-4000. 고 김석남 님(남/76세) 062-227-4000. 고 이태운 님(남/76세) 062-227-4000.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 제안하는 프리드. 기입문의 1688-3740